

12

...waiting...

대림 ②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 회개하여라 ”	“ 대림 제 2 주일 ”	2008년 12월 7일
복음 묵상:	[마르 1,1-8]	[이사 40,1-5.9-11]	[2 베드 3,8-14]

대림절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 길 위에서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때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나는 어떤 길 위에서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야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된 길이었다면 이제 부터는 참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지 아니었다면 앞으로 가는 길도 그른 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길이 아니라 그 분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 주셨던 요한 23세께서 공의회 소집 명령을 내리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인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길,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뜻이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마음 내키는 일,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림절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찾는 때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느님과 화목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2 베드 3, 14)이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입니다.

( 전주 용머리본당 김영수 신부님 강론중에서 )

##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 친손주 백일 참석차 12/6-12/10의 여정으로 동부를 다녀오십니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11/25일 2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은 가족 상봉차 11/23- 12/2 까지 일정으로 한국으로 여행떠났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 지고 편안한 여행길에 주님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허경애 수산나 자매님이 오라버니 수술및 조카의 결혼 참석차 11/20-12/10 까지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일 잘 치루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 공지 사항:

### 총회 공고

2009년의 새해를 맞으며 지나온 2008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새해를 준비하고자 다름과 같이 총회를 소집을 공고 합니다.

다 음

일시 및 장소: 2008년 12월 14일 (일) 교중 미사후 연습실

의제: 2008년 경과 및 회계보고, 신임 단장 선출 및 기타

1. 소식지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2.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으니 꼭 해 보시고...
3.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ikoreancatholic.org/node/10824>

4. 요셉회 송년파티에 성심 성가대가 초대받았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 본당. 일 시: 12월 17일

+ 복음 [마르 1,1-8]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분 명상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해 주십시오.

넓은 길, 평탄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넓고 푸른 또 다른 인생의 초원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의 양 우리가 행복의 보금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착한 목자이신 주님,  
 보살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조건 없이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으로 인해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사탕: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로마 12,12)."**